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열 처녀의 비유

(마 25:1-13)

‘열 처녀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 수많은 비유를 들어주셨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치유와 구제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유대의 혼인잔치는 일주일씩 하는 것이 상례였고, 대부분 저녁에 했는데 이는 한낮이 너무 덥고 또 히브리 개념으로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보통 열 명의 들러리를 세웠습니다. 본문의 비유도 신부에게 초대 받은 열 명의 들러리에 관한 것입니다. 신랑이 결혼식장에 도착하면 신부는 들러리들과 함께 나가 신랑을 영접하여 등불을 켜고, 신랑의 집으로 떠나는 연등 행렬이 벌여집니다. 그런데 본문의 경우처럼 신랑의 행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1.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

예수님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13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똑같이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똑같이 초대에 응했고,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은 똑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련한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들의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가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따로 담아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구원 받은 성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해서 늘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봉사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언제든 어디에서든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을 준비가 된 상태로 살라는 말입니다.

### 2. 기름을 항상 준비해 놓아야 한다

등은 신앙의 외형적 모습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을 갖고 여러 가지의 종교적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기름은 내면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살고 있는지, 성령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기름은 나누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나눠 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도 나눠 줄 수 있고, 자동차나 옷도 빌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나눠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잔치 집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다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닫힐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나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문이 닫히기 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하시어 언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The Parable of the Ten Virgins

(Matt. 25:1-13)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parable of the ten virgins' is the core of God's kingdom of heaven. Jesus gives a great many parables in order to explain the kingdom of heaven, and wants to show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Jesus' miracle, cure, and relief work is where the kingdom of heaven is.

It is customary for Jew to take one week for wedding feast. It is mostly held in the evening, because it is too warm to hold a banquet during the daytime, and for the Hebrews in their concept, the evening is the start for a day. A bride used to take ten bridesmaids. The parable in the text talked about ten bridesmaids who were invited by the bride. When a bridegroom arrives at the wedding, the bride with bridesmaids comes out and meets her bridegroom. They light the lamps, and a lantern parade leaves for groom's house. Nevertheless, it happens that the bridegroom's trip is often late like the case in the text.

### 1. Be ready for meeting Jesus

Jesus' conclusion is the only one, which is "keep watch" (v. 13), because no one knows the day or hour when Jesus will come. In the text, five foolish virgins and five wise virgins were equally invited to the wedding feast, all accepted the invitation, and they waited for the bridegroom. They also held lamps and fell asleep. In this situation, we cannot real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wise virgins and the foolish virgins. And there, the foolish virgins went only with their lamps, and the wise ones took oil in jars along with their lamps.

Jesus says that even though we equally attend church, we never feel at ease. It means that there are some Christians who are saved and the others who are not. The word, 'keep watch' indicates that we do not always pray and offer our service in church. Here, 'keep watch' means that whenever and wherever Jesus comes, we must live our lives by being ready for meeting Him.

### 2. Oils must always be rea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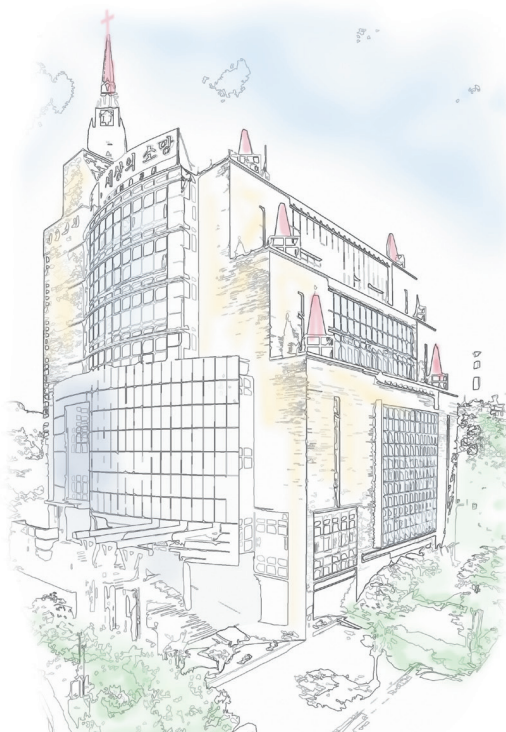
The lamp refers to our external appearance. It means our religious deeds of which we attend church and volunteer. On the other hand, because oil is internal, it means whether we live our lives by obeying God's word, by sharing deeply spiritual communication with God, or by living our life full of Holy Spirit.

Oil cannot be distributed and used. There are many things to give out in the world. We can give out money, and lend automobile or clothes, but we cannot give out salvation. Our faith is only the relation between God and me.

My beloved Christians,

The door of banquet is still wide open. Whoever is ready for a lamp and oil can enter the door. But the day that the door will be closed is coming near very soon. After the door closes, it will never open again. God waits for us for a long time, but he never waits for us eternally.

Therefore, before closing the door, by being ready to be filled with the oil of Holy Spirit,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the Lord's blessed people and you can joyfully meet Him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2015 흥해작전」 승리의 고지 눈앞에

주제 :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대상 16:10) / 강사 : 박노철 담임목사  
6월6일(토)~25일(목) / 새벽 5시~6시

2015년 흥해작전(본부장 : 이관규 장로)이 승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올해 흥해작전은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7번 이상 출석하여 2층과 3층 안내석에서 출석 스탬프를 확인 받아 25일 제출하면 출석상을 준다.

흥해작전 백일장 행사는 유아부부터 초등부는 그

림 그리기를, 중등부부터 장년부는 간증문을 공모한다. 6월 20일(토)은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기도의 날"로 영아부 부터 청년1, 2부까지 모두 참석하여 축복기도를 받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는 흥해작전에 참석하여 많은 은혜받기 바란다.



## 제7회 장로교의 날 준비 및 통일 기도회

6월23일(화) 오후7시, 웨스트민스터 홀

제7회 한국장로교의 날 - 7월10일(금) 오후3시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제7회 장로교의 날 준비 및 통일 기도회가 23일(화) 오후 7시, 우리교회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린다. 이날 기도회는 비전70부흥단 주관으로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박노철 담임목사가 환영사를, 이종운 원로목사가 축도를 한다.

한편 금년도 제7회 장로교의 날 행사는 7월10일

(금) 오후 3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종로구 대학로3길 29)에서 열릴 예정이며 우리교회 이종운 원로목사가 설교를 한다.

한국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

## 1학기 장년부 수료자 명단

강낙훈 강석조 강승용 공민호 곽숙 권성열 김기순 김광룡 김규승 김도훈 김명옥 김민아 김숙자 김순례 김양경 김연희 김영현 김유리 김은순 김은희3 김정자 김정희10 김홍기3 노제현 노종렬 문남이 문수자 박정란 박철용 박희석 배은희 백경애 백승갑 서영희 송민정 송인권 신규식 안인호 양원호 여현주 오은이 오혜경 유근종 유미숙2 윤정선 윤형준 이상운 이상호2 이신애 이영기 이용식2 이윤진 이정우 이진숙 이학주 임광우 임영숙 임종태 장정화 전미경 전숙향 정윤희 정일재 조애자 주동재 차영도 최규초 최성욱 한문영 허훈 허희승 홍영미 홍정란

## 방글라데시 선교사 파송

이경엽 선교사



- 부산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졸업
- 부산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졸업 (작곡전공)
-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선교학부전공)

## 영어예배부 부지도 청빙

우리 교회는 영어예배부 부 지도로 David John Khokhar을 청빙하였다.



David John Khokhar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B. Com. /Bachelor of Commerce from University of the Punjab, Lahore Pakistan
- M. Div. /Master of Divinity from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South Korea
- Th. M. /Master of Theology in New Testament (Continued) in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 호국의 달 특집



##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 올라! 기도하라!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연민과 동정의 대상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고 모든 나라들이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선진대열에 진입하고 있으니 이렇게 된 배후에는 우주 만물과 역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이끌어낸 한국교회의 기도가 있었다. 한국 근대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게 "대한민국은 과연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신앙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인천상륙으로 시작된 한국 기독교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앞장서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힘써 왔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영육의 관계로 비유한 요한 칼빈 목사의 후예들로 자처하는 우리 장로교인들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듯 민족과 국가를 위해 힘 없이 기도해 왔다. 1907년 대구의 두 노동자가 3개월간 담배를 끊고 그 돈을 모아 나라 빛을 갠다고 제안한 국채보상운동도, 일제에 저항하며 대한독립민세를 외친 삼일만세운동도, 중국 상해에 모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발족시킨 것도 모두가 기독교인들이 앞장선 일들이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함석헌은 "이렇게 해방이 올 줄은 몰랐다. 이는 하늘이 준 떡이다"라고

했고, 33년 만에 조국에 돌아온 이승만은 11월 28일 김구와 함께 서울 정동예배당에서 "나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불같은 약행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삼아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매진합시다"라고 당부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통해 기울어지기 시작한 조선 사회는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져 국도는 피폐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다. 그런데도 지배층은 파쟁만 계속했다. 이즈음(1903년) 원산지역 선교사 모임에서 회개운동이 폭발되어 서울, 개성, 평양, 선천, 광주, 대구, 제물포까지 회개의 물결이 흘러넘쳐 기독교 대각성운동의 역사가 일어나 무너진 사회윤리를 재정립하는데 기여했다.

1896년 4월 7일 서재필은 한국 언론의 여명을 연 독립신문 창간호를 애국심과 간절한 기도로 발행했고, 조선의 무지몽매를 깨운 서양 도깨비들로 불렸던 선교사들의 희생과 기도로 조선 근대교육이 시작되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순교자의 피뎌진 땅에 핀 꽃이다. 1886년 셔먼호를 타고 왔으나 입국 저지를 받

고 최초의 순교자가 된 토마스 목사를 비롯해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한 아들, 하나님의 뜻과 자유수호를 위해 북한 공산 치하에서 순교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 하물며 맥아더 장군도 미국의 극동사령관으로서 한국을 위해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았다.

"올라! 기도하라! 네가 할 일을 하라" 하신 환경적 목사의 외침처럼 국가의 위기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어김없이 전국 기도회를 개최했다.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고 국내적 혼란이 가중될 시기마다 국가를 위한 기도가 이 나라 교회들의 기도의 주제가 되어 왔다. 세계사를 바꿔 쓰는 25,000 명의 한국선교사들, 신학자 1,500 명 시대가 열린 것도 기도의 열매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졌고 지켜진 나라다. 우리는 여전히 한국 역사를 움직인 기도의 힘을 잃지 않는 한국교회와 민족이 되어야 한다.

위 글은 호국의 달 6월에 한국기독교공보 6월 13일자에 실린 이종운 원로 목사의 특별 기고문으로 지면상 부분 발췌 정리한 것이다.

(정리 허숙 권사)



#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2015년 홍해작전이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메르스의 기세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들은 승리의 고지를 향한 질주를 멈추지 않는다. 고지가 눈 앞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승리의 나팔소리를 온전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자. (편집부)

## 6월 13일(토) - 여호와 라파(Jehovah Rapha)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 15:22-27)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간다. 우여곡절 끝에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 앞에는 목마름과 배고픔과 이로 인한 원망과 불평과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에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를 선포하신다.

1. 불평하는 것은 불신앙의 습관이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을 고비를 맞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게 보인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간구했어야 했다.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습관이다.
2.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장소였다. 물이 없을 때, 어려움이 다가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고쳐 주시고, 잘못된 생각과 습관도 고쳐주시고, 깨어진 관계들도, 마라의 어려운 환경들을 엘림의 복된 환경으로 고쳐주신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 마라인가? 여호와 라파를 기억하라. 그 분을 신뢰하라.

## 6월 15일(월) - 여호와 닛시(Jehovah Nissi) 나의 깃발이신 하나님 (출 17:8-16)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된다. 이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바로 여기서 여호와 닛시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다.

1.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실상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었다.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많은 영적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갈리게 된다.
2. 협력하는 일은 어느 것 못지않게 영적인 일이다.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돌을 가져다가 피곤한 모세를 앉도록 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양팔을 붙들어 주었다. 산 위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산 밑에서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3. 인생의 전쟁터에서 여호와 닛시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깃발을 보면 군대의 소속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깃발이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의 깃발은 무엇인가? 돈인가? 지식인가? 건강인가? 명예인가? 인맥인가? 이런 깃발들은 언젠가 다 찢어지고 꺾이게 될 것이다.

여호와 닛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삼아야 한다. 그 깃발이 펴려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이다.

## 6월 16일(화) - 여호와 카데쉬(Jehovah Kadeshi) 거룩하신 하나님 (레 11:44-45)

'거룩'은 구원론과 성화론의 중요한 개념이다. '카데쉬'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도쉬'에서 나온 것으로 영어로는 holy, holiness 이다.

1.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은 모든 불의와 부정에서 분리된 상태이다. 전혀 죄가 없는 상태, 죄가 머물 수 없는 상태,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상태, 완전한 윤리와 도덕성이 세워져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을 수 있는 완전한 성결과 순결과 의로우심을 의미하며 오직 하나님만 소유한 속성이다(계 15:4).
2.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성도의 거룩한 삶과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성도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나?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 순간 짓는 죄를 회개할 때, 또 주님께 드러지는 삶을 살 때 거룩해질 수 있다.

3.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법. 성도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마 5:16).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롬 2:24).

여호와 카데쉬,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

## 6월 17일(수) - 여호와 체바오트(Jehovah Tsebaoth) 만군의 주 여호와 (삼상 17:45-47)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 Jehovah Tsebaoth가 나온다(삼상 17:45). 체바오트는 영어로 'The Lord of Hosts', hosts는 허다한 군대를 의미한다.

1. 우리의 대장은 전능하신 용사이시다. 여호와 체바오트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전능하신 용사이시며, 용사의 무기는 불과 유향과 폭풍우(시 11:6), 우박덩어리(수 10:11) 이다. 그 누구도 전능하신 용사를 이길 수 없다. 그 분은 백전백승의 용사시다.
2. 전능하신 용사가 이끄시는 군대는 막강한 군대이다.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와 엄청난 군사를 몰고 이스라엘 도단성을 에워쌌지만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군대 불발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졌다(왕하6:17).

3. 만군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분의 힘을 실어 주신다.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한 달이 넘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독을 당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못했다. 이때 10대 소년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나섰다. 다윗은 여호와 체바오트, 전능하신 용사와 함께 골리앗 앞에 섰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주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자.

6월 18일(목) - 아도나이(Adonay) 주이신 하나님 (시 16:1-11)

아도나이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1. 세상만물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주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인생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시 24:1).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를 사해주셨다(엡 1:7). 속량은 무엇인가를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다. 종은 노예를 의미한다. 노예는 자신의 권리나 자유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인가? 혹시 헛된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즐겨 하나님의 종이 되자.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종이 되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 헬라어로 '휴페레테스'로 읽는 일꾼은 배 밑창에 들어가 노를 젓는, 다시 말해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종을 의미한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고백하는 자들은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시 16:8)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Adonay! 입술 뿐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자.

6월 19일(금) - 여호와 로이(Jehovah Roi)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시 23:1-6)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다. 왜일까? 인생을 지켜주는 진정한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가운데 목자와 양이 있다. 목자, 곧 여호와 로이는 성경에 60여회 등장한다.

1. 우리는 목자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양이다. 양은 방향감각이 없고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이 없어서 목자의 인도와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라고 증거한다.

2.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므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요 10:11).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기꺼이 버리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하나님은 항상, always,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Jehovah Roi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그를 자랑하자. 그리하여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사는 복된 백성들이 되자.

만민에게 전도 - 2015비전트립

# 인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 서준권 목사 (2015비전트립 지도)

‘한 사람’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 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잃어버린 한 사람인 저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한 사람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2015년 인도 비전트립이 “인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이라는

표어와 “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종권 집사님을 단장으로 현지에서 합류하는 3명의 지체를 포함하여 29명의 지체들이 8월 1일(토)부터 8일(토)까지 서울교회 파송선교사이신 우상식 선교사님을 도와 남인도 카르나타카주의 벵갈로 지역을 섬기게 됩니다.  
 이를 위해 비전트립팀원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8시)과 토요일 오후(4시)에 모여 기도하며 선교를 위한 제반적인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인도 비전트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선교 될 수 있도록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를 위한 시설 확충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교육하는 우리교회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였다.  
 어린이 전용 양변기 4대를 7층 남녀 화장실에 각각 1대, 1층 남녀 화장실에 각각 1대씩 설치하였고, 영아부 유아부 어린이들의 기저귀를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기저귀 교환대를 1층 여자장애인 화장실, 7층 장애인 화장실에 각각 설치하였다.  
 성도들은 편의 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기저귀는 절대 양변기에 넣지 말고 휴지통에 넣어 주기 바란다.



천국시민양성-호산나학교

# 감사합니다

## 정일영 성도 (5교구)

안녕하세요.  
 저는 호산나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정민철 아빠입니다.  
 먼저 민철이가 호산나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심하게 당하는 민철이는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들었고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민철이가 점점 괴물이 되어간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호산나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신뢰와 감동이 있었지만 겨우 13살 어린 아들을 수원에서 통학시키는 것도, 그렇다고 기숙사에 입소시키는 것도 저희에게겐 난감하고 불안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결단을 하고 민철이는 기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생활은 민철이가 더 빨리 학교에 적응하고 사회성을 기르는데 큰 도움

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철이의 문제행동으로 학교생활이 처음에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니다. 선생님들의 애정어린 훈육과 교육으로 민철이의 행동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고 특히 자존감이 살아나고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밥, 김, 우유만 먹고 다른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냄새조차 맡기 싫어하던 민철이는 그 힘들게 했던 편식이 해결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기다려 주심과 사랑으로 절대 고칠 수 없었던 것 같던 편식이 고쳐졌고 한번도 사귀어 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학생들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던 아이가 세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집에 올 때마다 성장해가고 있는 민철이를 보는 우리부부는 놀랍고 감사하며 행복할 따름입니다.  
 요즘 저는 민철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 민철이와 함께 서울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와 같이 장애학생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생활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신 서울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등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6월23일(화)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사회와 장로교의날 행사 준비기도회에 각각 참여한다.
- 주일식당봉사 : 베드로 선교회(6.21) 비둘 선교회(6.28)
- 금주의 식사 제공 : 박태규 집사 송희숙 집사 가정, 박태엽 집사 (고 이경희 권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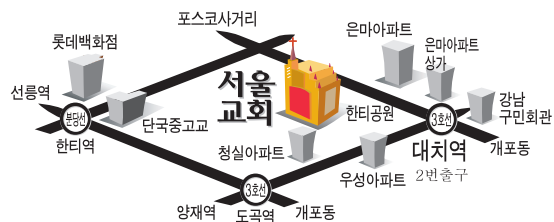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흥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에 마지막까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2. 교구별 특별찬양을 통하여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3. 메르스와 가뭄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서울교회 모든 세대들이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애국애족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본 당 II 층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